

懺悔錄

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속에
내얼굴이 남아있는것은
어느王朝의遺物이기에
이다지도 욕될가

나는 나의懺悔의글을 한줄에 주리자,
—— 滿二十四年一個月을
무슨김뽐을바라살아왔든가

내일이나 모레나 그어느 즐거운날에
나는 또 한줄의 懺悔錄을 써야한다.
—— 그때그 젊은나이에
왜그런 부끄런 告白을 했든가.

밤이면 밤마다 나의거울을
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닦아보자

그러면 어느 隕石밑으로 홀로거러가는
슬픈사람의 뒷모양이
거울속에 나타나온다.

一月二十四日.

참회록

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
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
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
이다지도 욕될까.

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.
——만 이십사 년 일 개월을
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.

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
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한다.
——그때 그 젊은 나이에
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.

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
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.

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
슬픈 사람의 뒷모양이
거울 속에 나타나온다.

1. 24.